

## 돌잔치 문화의 변화에 따른 돌복 디자인 특성 연구

### The Characteristics of First-Birthday Ceremonial Costume Design According to Changes in First-Birthday Party Culture

주 저 자 : 류수현 (Rhew, Soo Hyeo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전임대우강의교수  
dra79@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rs.2026.1.307>

접수일 2026. 02. 20. / 심사완료일 2026. 02. 27. / 게재확정일 2026. 03. 09. / 게재일 2026. 03. 30.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343)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volving culture of modern first-birthday party (doljanchi) and analyze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ceremonial costume(Dolbok) worn during these even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ed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semi-structured surveys(n=47) on first-birthday parties and first-birthday attire targeting parents who held the parties between 2013 and 2023, content analysis, and case studies on 702 images of first-birthday outfit designs. The key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irst-birthday culture are industrialization, rational choice, and diversification. Reflecting the shifts in first-birthday culture, the design features of the costume are characterized by ritualistic symbolism, diversity, decorativeness, and wearability.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 into the shifting values of modern parents and offers foundational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childcare industry, including businesses related to first-birthday celebrations.

## Keyword

First-Birthday Party Culture(돌잔치 문화), First-Birthday Ceremonial Costume(돌복), Design Characteristics(디자인 특성), Cultural Change(문화 변화), Ritual Symbolism(의례의 상징성), Diversity(다양성)

##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변화된 돌잔치 문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돌복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돌잔치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돌잔치와 돌복에 대한 반구조화된 설문 조사(응답자: 47명) 및 내용 분석, 돌복 디자인에 대한 사례 연구(돌복 702점)를 진행하였다. 돌잔치 문화의 특징으로는 산업화, 합리적 선택, 다원화가 도출되었다. 돌복은 크게 남아의 한복 및 양장, 여아의 한복 및 양장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돌잔치 문화의 변화에 따른 돌복의 디자인 특성은 의례의 상징성, 다양성, 장식성, 착용 편의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현대 부모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돌잔치 관련 사업을 포함한 육아 관련 산업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돌잔치에 대한 고찰
- 2-2. 돌복의 역사와 구성

### 3. 돌잔치 문화의 특징 분석

- 3-1. 산업화

- 3-2. 합리적 선택

- 3-3. 다원화

### 4. 돌복의 디자인 특성

- 4-1. 돌복의 조형적 분석
- 4-2. 돌복의 디자인 특성

###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돌은 아이가 처음 맞는 생일로, 조선시대부터 돌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이루어져 왔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돌잔치는 돌복을 입고 돌상을 차리는 등의 형식을 갖추어 치르는 아이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이다. 이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으나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sup>1)</sup>.

분야별 전문 창작자들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네이버 검색인 네이버 인플루언서(in.naver.com)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면 돌잔치, 돌잔치의상, 돌잔치한복, 돌잔치엄마원피스가 포함되어 있다. 돌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부모들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돌잔치 진행과 의상 마련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들은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돌잔치는 여전히 아이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지며 부모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돌잔치에서 착용하는 돌복은 예전의 풍속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달라진 돌잔치 문화의 일환이다. 따라서 변화된 돌잔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달라진 돌복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돌잔치에 대해서 의례의 일부로서 민속사적 접근이 주로 진행되었고, 2000년대 이후의 돌잔치와 관련한 연구로는 연회장, 음식, 화훼장식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돌복에 대해서는 복식사 연구들, 20세기 돌옷 변천에 관한 연구<sup>2)</sup>, 돌파티웨어 디자인 선호도 분석에 따른 디자인개발에 대한 연구<sup>3)</sup>와 여아의 돌파티웨어 디

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sup>4)</sup>, 돌복 디자인 개발 연구<sup>5)6)</sup>가 진행되었다. 김소연·이인성(2014)의 연구는 돌아기의 의상이 아닌 성인의 의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백미연·백민숙(2013)의 연구는 여아의 의상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두 편 모두 돌파티라는 다소 한정된 돌잔치 형태에 집중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진 수집을 바탕으로 디자인 선호에 대한 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발 연구였다. 이지원·송정아(2015)와 김인자(2021)의 연구에서는 한복으로 된 돌복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현재의 돌잔치 문화의 변화에 기인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돌복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변화된 돌잔치 문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돌복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부모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돌잔치 관련 사업을 포함한 육아 관련 산업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현대에 돌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크게 돌 사진 촬영과 돌잔치로 나눌 수 있다. 돌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에서는 촬영 컨셉에 따라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와 돌잔치용 의상이 동일하게 이어지진 않는다. 전통적 의미의 돌복이라는 용어는 돌잔치에서 입는 의상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돌잔치에서 입는 의상인 돌복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돌잔치와 돌복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대의 돌잔치 문화와 돌복에 대한 반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돌복 디자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 유문희, '출생의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  
2) 이해영, '20세기 돌옷 변천에 관한 고찰: 사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0, No.2, 2001. 6. pp.1-11  
3) 김소연, 이인성,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돌 파티웨어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16, No.3, 2014. 9. pp.33-48

4) 백미연, 백민숙, '여아를 위한 돌파티 웨어 디자인 개발',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디자인지식저널, No. 26, 2013. 6. pp.291-300  
5) 이지원, 송정아, '전통한복 양식에 기반한 현대의 돌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지, Vol.17, No.5, 2015. 10. pp.793-799  
6) 김인자, '남아 전통 돌복에 관한 고찰과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총 47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문항은 돌잔치의 준비·형태와 규모·평가, 돌복의 종류와 구성·평가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특성에 따라 선다형의 선택형 및 서술형의 혼합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동의하에 돌복 사진을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최근의 문화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돌잔치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대상자 선정은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에 대하여 5단계 순환 과정에 의한 분석<sup>7)</sup>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문헌 연구 내용과 함께 돌잔치 문화 특징 및 돌복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5단계 순환 과정은 모으기, 나누기, 재배열하기(배열하기), 해석하기, 결론내리기로 구조화할 수 있다. 모으기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나누기는 모은 자료를 더 작은 조각이나 부분으로 쪼개는 것이다. 나눈 부분이나 조각들을 주제에 따라 재구조화하는 것을 재배열하기라고 한다. 재배열한 자료들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해석하기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결론내리기라고 한다. 각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와 순환적으로 작용하여 검토 과정을 거친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돌복 사진 30점(남아 한복 7점, 여아 한복 14점, 남아 양장 5점, 여아 양장 4점)과 더불어 돌복 대여업체를 인터넷 검색 상위 업체 중 90여벌 이상을 취급하는 한복과 양장 업체 5개를 선정하여 보유 의상 672점(남아 한복 206점, 여아 한복 188점, 남아 양장 130점, 여아 양장 148점)까지 총 702점에 대하여 의복 아이템 및 액세서리, 실루엣, 색채, 소재, 문양, 디테일 측면에서 분석하여 설문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내용 분석과 디자인 사례 연구에 대해 의류학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돌잔치에 대한 고찰

돌은 아이가 출생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의학 적 지식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절기마다 현저한 기온의 변화로 인하여 영아의 사망률이 매우 크고 질병이 많

7) Yin, R.K.,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학지사, 2013, pp.277-280

았기 때문에 아이가 돌을 맞이한다는 것은 성장의 초 기과정에서 완전히 한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는 계기가 되므로 이를 축하하게 된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풍습화 된 것이 돌 행사이다<sup>8)</sup>. 이는 아기의 장수복록, 자손번영, 다재다복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져 왔다<sup>9)</sup>.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 권 17 인사부 생산(生産)편에서는 중국의 ‘안씨가훈’의 기록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에도 돌잔치의 풍습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0)</sup>.

돌을 축하하기 위한 의식, 행사라는 의미로 돌잔치<sup>11)</sup>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영어와 결합한 돌 파티 등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 행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돌잔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전통적인 돌잔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돌날 아침 일찍 삼신에게 감사의 차성을 드리고<sup>12)</sup>, 아이에게 돌복을 입히고, 돌상을 차리고, 돌잡하기·돌떡돌리기 등의 돌날 행사를 진행한다<sup>13)</sup>.

돌상은 쉬반(碎盤)이라고도 하며<sup>14)</sup>, 돌상의 주요 음식은 떡과 과일로, 떡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백설기는 아기의 신성함, 정결함,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으며, 수수경단은 그 붉은색이 귀신의 출입을 막고 무병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sup>15)</sup>.

돌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행사인 돌잡히기에서는 남아아이의 경우 활, 실, 책(천자문), 붓, 버루, 먹, 두루마리, 쌀, 대추를, 여자아이의 경우는 쌀, 반절필(反切筆), 먹, 두루마리 종이, 실, 대추, 국수, 미나리, 돈, 자, 인두, 바늘, 칼, 가위 등을 놓아두고 첫

8) 장성진, 『우리 민속과 전통문화』, 세종출판사, 2004, pp.45-47

9) 김용덕, 『한국 민속 문화 대사전(상, 하)』, 창술, 2004, p.507

10) 서울특별시, 『서울민속대관: 4.통과의례』, 서울특별시, 1993, pp.276-280

11) 강인희, 이경복, 『한국식생활 풍속』, 삼영사, 1984, pp.185-188

12) 서울특별시, Op. cit. 1993, pp.276-280

13) 이길표, ‘돌상에 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연구 논문집, No.36, 1998. 2. pp.399-432

14) 권광욱, 『육례이야기: 관혼상제·향례·상견례』, 도서출판 해돋이, 2000, pp.891-899

15) 김용덕, Op. cit. 2004, p.507

번째와 두 번째 잡는 것을 가지고 아기의 장래를 점치기도 하였다<sup>16)</sup>.

돌잔치 풍습은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를 겪어왔다. 1960년대까지는 백일잔치와 돌잔치를 모두 중요히 여겼으며, 오히려 백일잔치를 더 성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백일잔치는 집에서 간소하게 하고, 돌잔치는 친척과 이웃을 불러 집 외의 장소에서 성대하게 진행하게 되었다<sup>17)</sup>. 최근 들어서는 거대화된 돌잔치보다는 직계가족 위주로 모여 진행하는 소규모의 돌잔치가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돌잔치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부모들이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여 진행하는 셀프 돌잔치를 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대규모 행사가 불가능해지게 되자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돌잔치라는 새로운 형태도 등장했다<sup>18)</sup>. 저출산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인 텐 포켓 소비 현상은 외동아이를 태어나 귀하게 자란 골드 키즈를 위해 지갑을 여는 부모, 조부모, 이모, 삼촌, 지인까지를 일컫는 용어인데, 이 현상은 돌잔치에도 영향을 미쳐 내 아이를 위한 특별한 돌잔치를 기획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sup>19)</sup><sup>20)</sup>.

특히 육아 커뮤니티와 육아 콘텐츠를 다루는 인플루언서들은 돌잔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서는 돌잔치와 관련한 용어들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양의 파티 형식을 빌려 나타난 돌파티<sup>21)</sup>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며, 돌복을 양장으로 입히는 경우 여아의 옷은 돌드

레스, 남아의 옷은 돌정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2-2. 돌복의 역사와 구성

돌에 아기가 입는 옷을 돌복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이미 돌잡이에게 새 옷을 입히는 풍속이 일반화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22)</sup>. 경제적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색깔있는 옷감을 사용하여 남아, 여아를 구분하여 입혀왔다<sup>23)</sup>.

전통적인 남아 돌복의 경우 바지-저고리만 입히기도 하고, 이 위에 마고자, 조끼 등 간단한 의복이 더해지기도 하였으며, 보다 격식을 갖추는 경우 마고자, 조끼 위에 두루마기, 전복, 사규삼, 용포 등을 더해 돌복 일습으로 완전하게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수혜(2006)는 돌복 유물을 바탕으로 남아 돌복의 착장 양식을 바지-저고리형, 배자형, 마고자형, 두루마기형, 전복형, 사규삼형, 용포형 등으로 분류하였다<sup>24)</sup>.

바지-저고리형은 바지와 저고리만을 착용한 양식으로 저고리는 주로 색동저고리 혹은 흰색, 옥색, 분홍 저고리에 남색의 고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고름의 길이를 길게 하여 가슴을 한 바퀴 돌려 매었는데 이는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지는 풍차바지([그림 2])로 색상은 흰색, 회색, 분홍, 보라로 대체로 옅은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sup>25)</sup>.

배자형은 바지-저고리 위에 단추가 없는 짧은 조끼 모양의 배자 혹은 조끼를 착용한 양식으로, 주로 남색을 사용하나 분홍, 연두, 노랑, 색동 등의 다양한 색상도 있으며 직문법, 금박법, 자수법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문양을 새겨넣었다. 조끼는 배자에서 깃이 없어지고 주머니가 있는 형태이다<sup>26)</sup>. 마고자형([그림 3])은 바지-저고리 위에 배자나 조끼를 입고 마고자를 착용한 양식이다. 주로 연두 길에 색동 소매를 주로 사용하며, 화문양이 있는 경우가 많고, 복건과 함께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sup>27)</sup>. 두루마기형은 마고자형 위에

16) Ibid., p.507

17) 주영하,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화: 1940~1990',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한국의 민속과 문화, No.7, 2003. 12. pp.201-232

18) 이미나, '코로나19가 바뀌버린 결혼식과 돌잔치 일상', 한국경제, 2020.04.29. (2020.05.01.), [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42802347](http://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42802347)

19) 이서연, '키즈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 살길 찾는다', 국제섬유신문뉴스, 2020.02.10. (2020.05.01.), [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66](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66)

20) 한경닷컴 bnt뉴스 패션팀, '내 아이 드레스 직접 만들기', 비엔티뉴스, 2009.10.03. (2020.05.01.), [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2&c1=02&c2=02&c3=00&nkey=200910011612083&mode=sub\\_view](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2&c1=02&c2=02&c3=00&nkey=200910011612083&mode=sub_view)

21) 김소연, 이인성, Op. cit. 2014, pp.33-48

22) 강인희, 이경복, Op. cit. 1984, pp.185-188

23) 이지원, 송정아, Op. cit. 2015, p.794

24) 이수혜, '남아 돌복의 착장양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2-39

25) Ibid., pp.13-17

26) Ibid., pp.17-21

27) Ibid., pp.21-24

두루마기를 착용한 것으로, 연두 초록의 길에 황색의 썸, 적색의 무, 청색의 깃과 고름의 오방장두루마기나 색동 두루마기가 대부분으로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길상도안과 화문양이 주로 나타났다<sup>28)</sup>. 전복형(그림 4)은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착용한 양식이다. 전복은 주로 남색이며, 금박으로 길상문양과 길상도안으로 장식하였고, 붉은 색 돌띠를 함께 착용하였다<sup>29)</sup>. 사규삼형은 두루마기 위에 또는 두루마기와 전복 위에 사규삼을 착용한 양식이다. 색상은 주로 연두와 분홍이며 선은 흑색으로 선 위에 금박으로 문양을 장식하였다<sup>30)</sup>. 용포형은 사규삼형 위에 용포(그림 5)를 착용한 양식이다. 용포와 사규삼은 원래 왕세자의 복식이었으나 돌복으로도 활용되었다<sup>31)</sup>.

남아용 부속품 중 머리쓰개로는 두루마기, 전복과 함께 흑색 복건(그림 4)을 착용하거나, 오방장두루마기, 전복, 사규삼과 함께 호건을 착용하였다. 호건은 복건과 비슷하나 머리 정상의 양 끝에 호랑이의 두 귀를 만들어 달고 눈, 코, 입, 수염을 수놓아 장식하여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건강하라는 염원을 담았다<sup>32)</sup>. 그 외에 의례용 혹은 방한용으로 착용했던 굴레를 머리에 착용하기도 하였다. 굴레는 정수리를 덮은 모부(帽部)가 세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닥으로 얹어져 있고, 그 밑으로 여러 가닥의 드림(땀기)이 드리워져 있다. 굴레의 맨 앞 선과 굴레허리를 남색으로 한 것이 남아용이고, 자주색으로 한 것이 여아용이다.

여아 돌복의 경우 크게 저고리에 치마를 입는 저고리형과 당의에 치마를 입는 당의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의로는 저고리와 당의를 입고 그 위에 소매없는 당의나 배자 혹은 조끼를 덧입거나 장삼, 노의 등의 옷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의로는 금박문이 있는 다홍색이나 분홍색의 스란 치마에 어깨허리를 달아 착용하고 치마 속에 노랑색 속치마나 풍차바지를 착용하기도 하였다<sup>33)</sup>(이해영, 2003). 저고리는 노랑색 혹은 연두색 길에 색동소매를 단 것(그림 6)을 주로 착용하였다. 당의는 보통 저고리보다 길이가 길며 겨드랑이 아래 양옆이 트여 있고 도련이 둥근 형태로, 초록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양쪽 어깨에 보가 장식되기도 하였

28) Ibid., pp.24-29

29) Ibid., pp.29-34

30) Ibid., pp.35-37

31) Ibid., pp.37-39

32) Ibid., pp.46-48

33) 이해영, Op. cit. 2003, pp.11-12

다<sup>34)</sup>

여아의 머리쓰개로는 굴레를 착용하거나 귀를 덮는 형태의 조바위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병마와 액운을 막기 위해 보석, 자수 등으로 장식된 동그란 뱃씨에 끈을 달아 머리와 함께 떨어뜨려 착용하는 뱃씨당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 외 가장 화려한 여성용 머리쓰개로 화관이나 족두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sup>35)</sup>.

그 외 부속품으로 타래버선과 신발을 착용한 뒤 돌띠와 돌주머니는 남녀 모두 공통으로 착용하였다. 돌띠는 장수를 뜻하며 길게 만들어 한바퀴 돌려 사용하며, 오랑을 달기도 한다. 돌 주머니는 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앞면에는 모란, 국화를 수놓고 뒷면에는 수(壽), 복(福)을 수놓는다. 돌 주머니의 끈에는 장식을 달아 준다. 장식물에는 작은 타래버선, 은도끼, 은너비, 은복, 은물고기, 은장도, 은장물통을 달아 주는데 이는 아기의 장수복록을 기원하고 귀신의 접근을 막는다는 뜻이 있다. 또한 돌복을 지을 때에는 단추를 달지 않고 끈을 길게 하여 달아 주는데, 이것은 장수의 의미가 있다<sup>36)</sup>. 이처럼 돌복은 돌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돌을 맞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주요 상징들의 집합체이다.

최근의 돌복은 전통 한복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과 양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가 직접 아이의 옷을 만들어<sup>37)</sup><sup>38)</sup> 의미있는 돌 선물을 해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돌잔치 및 돌복의 형식과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잔치에서 사용되는 돌복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돌잔치 문화의 변화를 바탕으로 돌복 디자인 특성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34) Ibid., pp.11-12

35) Ibid., pp.9-11

36) 김희경, '돌 및 생일 상차림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15-16

37) 한경닷컴 bnt뉴스 패션팀, Op. cit. 2009

38) 신세아, '우리 아이 드레스는 내 손으로: 손쉬운 돌드레스 DIY', 한국경제 키즈맘, 2014.12.02. (2020.05.01.), 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412021534o



[그림 1] 돌 저고리(1950년대)<sup>39)</sup>



[그림 2] 풍차바지(1998)<sup>40)</sup>



[그림 3] 바지저고리와 마고자(조선 말기)<sup>41)</sup>



[그림 4] 전복 일습(조선 말기)<sup>42)</sup>



[그림 5] 용포(1910년대)<sup>43)</sup>



[그림 6] 여아용 색동저고리(1900년대)<sup>44)</sup>

39) 경운박물관, 『옛 어린이 그 소중한 어여쁨 옷』, 에이엔에이(주), 2005, p.39

40) 정정완, 『침선장』,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8, p.73

41) 김영숙, 『조선조말기 왕실복식』, 민족문화추진회, 1987, p.130

42) Ibid., p.114

43)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p.26

44) Ibid., p.54

### 3. 돌잔치 문화의 특징 분석

설문 조사의 답변 내용을 내용분석하여 문장 및 주요 어구로 나누어 주로 많이 나오는 유사 의미의 단어들 모아 배열하는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검토하여 총 3 가지의 주제인 산업화, 합리적 선택, 다원화로 재 배열하였다. 각 주제와 구체적 답변 내용, 문헌 조사 결과 등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 및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3-1. 산업화

전통적인 돌잔치는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돌상과 돌복 등을 준비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돌잔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식당, 돌상업체와 돌복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여 돌잔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화 되어 있다.

식당 중에는 돌잔치를 위해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들이 있으며 돌상을 전문적으로 준비해 주는 업체, 돌복을 대여해주는 업체 등 돌잔치에 필요한 준비를 대신해 주는 업체들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돌잔치가 가능한 식당들은 특정 돌상 준비업체나 돌복 대여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중 약 87%(41명)가 호텔이나 식당 등 돌잔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갖춰진 곳에서 진행하였고, 이들 중 대다수가 식당과 연결된 돌상 준비업체나 돌복 대여업체를 이용하였다.

식당과 연결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돌상 일체를 준비하고, 포스터 등과 같은 장식을 준비해 주는 업체, 돌복 대여업체 등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약 63%(30명)에 달했다.

또한 돌잔치 진행에 있어서 전문 사회자를 고용하거나 식당 관계자·돌상업체 관계자 등이 사회를 봐주는 경우가 약 49%(23명)이었다.

돌복 업체의 경우도 판매 및 대여 분야로 나뉘고, 한복과 양장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복의 경우 돌 전통 한복과 현대적 디자인의 한복으로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 양장의 경우 명품 브랜드 스타일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돌잔치 자체가 산업화되어 예전처럼 부모가 가정 내에서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식당을 이용하거나, 돌잔치 업체를 이용하거나, 의상의 경우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등 돌잔치의 각 세부 요소들이 세분화되어 산업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돌잔치

가 여전히 부모들에게 중요한 의례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2. 합리적 선택

전통적인 형태의 돌잔치에서는 아기의 장수복록, 자손번영, 다재다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치성드리기, 돌상차리기, 돌복입기, 돌잡히기, 돌떡돌리기 등의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치성드리기는 많이 생략되었으며, 돌떡돌리기도 축소되었다. 돌상 또한 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떡과 과일 정도로 음식 개수와 규모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 중 약 79%(37명)가 돌잔치 참가 인원 규모를 20인 이내로 직계가족 위주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였다. 대가족 혹은 이웃 연대의 가치관에서 가족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의례에서도 나타나는 경향<sup>45)46)</sup>이다. 돌잔치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소규모로 진행하고 싶거나, 식사만 간단히 하거나 사진 촬영만 하는 등 최소화하여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허례허식을 이유로 돌잔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2건 있었다.

또한 돌잔치 진행 비용과 관련하여 돌잔치 업체와 의상 대여 비용 등에 대해서 가격 부담에 대한 평가가 많았다. 나이가 거의 한 번만 입게 되는 돌복을 대여 혹은 구입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돈을 소비하는 데 대해서 경제적 부담감을 느껴 평상시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깔끔한 일상복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통적 형식의 돌잔치에서는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이웃과 가족의 의미가 축소된 현대 사회에서는 굳이 대규모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진행하기보다는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자 하는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인공이 편안하면서 가장 빛날

45) 양순미, 유일상, '해방 이후 한국 상례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변화유인원으로 가정의례준칙의 실효성 및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Vol.29, No.1, 2017. 03. pp.193-224

46) 이인애, 박주희, '국내 결혼식 문화의 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18, No.3, 2018. 09. pp.21-40

수 있는 형태로 기억하기 위해서 의상에 신경을 쓰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 기념사진을 남긴다거나,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직계가족 위주의 소규모로 진행하여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행사로 축소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허례허식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아이의 첫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념할 수 있는 의미적인 측면이 더 중요시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3-3. 다원화

돌잔치의 산업화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편으로 선택의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퀄리티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크고 이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선택의 범위가 좁아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기도 하였다고 답하였다. 많은 부모들이 산업화로 인한 편리함의 장점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좁은 선택지보다는 보다 더 취향에 맞는 이벤트를 위해 시간을 들여 많은 정보를 찾기도 하고, 일부는 과연 합리적 소비가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돌잔치 비용과 그 효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이 진정 아이를 위한 것인지 혹은 부모의 만족인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돌을 맞은 아이의 경우 낯가림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인 잔치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하고, 돌잔치를 위해 입은 특별한 옷을 매우 불편하여 돌잔치 중간에 의상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어 돌잔치를 즐기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였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첫 생일을 어떻게 치러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돌잔치 장소, 업체나 돌복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내용 구성이나 후기 등을 통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미리 예약한다거나, 돌복을 고를 때에도 무조건 유행화된 전통 복식을 고르기보다 아이에게 잘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여러 업체들을 비교하여 고르거나 직접 사기도 하였다. 한복 외에 양장을 입거나 일상복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복의 경우 전통적인 형태도 있었으나, 현대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한복의 착용도 많았다.

돌잔치 행사 구성에 있어서 돌상, 돌잡이 등의 행사는 전통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외에 아이의 성장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사진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아이에 대한 퀴즈를 낸다거나 축하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요소를

추가하여 특별하게 돌잔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희망 사항으로 더 큰 규모로 진행해 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외 혹은 야외에서 나들이를 겸하여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재미있는 행사로 기획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한 행사이니만큼 더 시간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하고 싶거나, 동영상 많이 준비하고 돌잔치에서 사진을 더 많이 찍고 가족끼리 의상을 맞춰 입는 등 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돌잔치라는 전통적인 형태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원화된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정보 수집과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은 돌잔치 문화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어떤 내용들이 모여져서 각 주제화가 되며 각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표 1] 돌잔치 문화의 특징**

특징	내용
산업화	돌잔치 전문 식당, 돌상 업체, 돌복 대여 업체 등으로 세분화되어 산업화됨. ▶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여전히 중요한 의례로 인식됨을 알 수 있음.
합리적 선택	행사 내용의 축소, 음식 규모 축소, 돌잔치 참석 인원 축소 등 합리적 소비 및 기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허례허식보다 본질적 의미를 더 중시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다원화	전통적인 형식의 행사 외에 다양한 기획을 추구하기도 함. ▶다원화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

## 4. 돌복의 디자인 특성

### 4-1. 돌복의 조형적 분석

남아와 여아, 한복과 양장으로 각각 분류한 뒤 각 카테고리별로 착장 아이템 구성에 따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 내에서 의복 아이템 및 액세서리, 실루엣, 색채, 소재, 문양, 디테일 측면에서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 4-1-1. 남아 한복

남아 한복의 경우 주로 배자형, 전복형, 답호형, 두

루마기형, 사규삼형, 용포형이 나타났으며, 바지-저고리 형과 마고지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배자형(그림 7)은 흰색 혹은 밝은 색 저고리나 색동저고리와 함께 바지를 착용하고 엉덩이를 덮는 길이 정도의 배자를 함께 착용하였다. 배자에 깃과 고름이 대부분 있었으나 간혹 깃과 고름이 없는 조끼형도 있었다. 저고리와 바지의 색이 밝고 단색인 경우 배자의 색을 달리 하여 착용하였다. 파스텔톤, 스트롱톤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부분적으로 금박문을 넣기도 하였지만 꽃무늬 등이 들어간 원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섹이나 몸판의 일부분을 다른 원단으로 하여 장식 효과를 주기도 하고, 앞섶 중앙에 원형의 보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복형은 남색, 하늘색 등 푸른 계열의 전복에 색동저고리 혹은 저고리와 함께 착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초록, 노랑 등의 전복도 나타났다. 전복에는 대부분 금박문이 있었으며, 복건과 함께 착용되었다.

전복과 유사한 형태로 답호형(그림 8)도 많이 나타났다는데, 전통 복식에서 답호는 곧은 깃과 무가 달린 반수의 형의 포<sup>47)</sup>이다. 돌 아기를 위한 답호는 전복에 곧은 깃 혹은 둥근 깃과 섹을 단 형태로 저고리, 바지, 복건과 함께 착용되었다. 소매가 없는 형태도 있고, 반소매가 달린 경우도 있었다. 색은 명도, 색상, 채도 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소매가 있는 경우 색동으로 다는 경우도 있었으며, 금박문이 있거나, 가슴에 보 장식을 하거나 섹과 소매를 다른 색으로 사용하여 장식 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장식이 많은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저고리와 바지는 흰색이나 미색 등 밝은 단색으로 착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루마기형은 바지, 저고리, 복건과 함께 색이 있는 두루마기가 함께 착용되었는데, 연보라, 미색, 분홍색 등이 사용되었고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규삼형(그림 9)의 사규삼은 전통적인 형태인 검정선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른 색 선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림 9]와 같이 긴 소매가 아닌 반소매 형태도 많이 나타났다. 바지, 저고리, 복건과 함께 착용되었다. 옥색, 하늘색, 연보라색, 분홍색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색 선에는 금박문이 장식되어 있었다. 전체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한 경우가 많았다.

용포형(그림 10)으로는 바지, 저고리에 용 문양의 둥근 자수 장식이 앞판에 부착된 용포를 착용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는데, 용포가 대개 철릭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긴 소매 혹은 반소매로 구성되어 있었고, 곧은 깃, 둥근 깃이 고루 나타났다. 남색, 파랑, 초록, 빨강, 노랑 등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고, 채도가 높은색, 채도가 낮으며 밝은 색 등 다양한 톤의 색상이 나타났다. 용포형에서는 가장 화려한 금박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섹, 소매 끝, 밑단뿐 아니라 어깨에서 소매까지(그림 10), 철릭 위쪽 상의 전체 등에 화려하게 금박문이 새겨진 것도 볼 수 있었다. 보 장식도 가슴 뿐 아니라 어깨에도 부착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술 장식 등을 허리띠에 함께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액세서리류로는 복건, 돌띠, 태사혜, 버선을 공통적으로 착용하였다. 돌띠의 경우 긴 끈의 형태로 된 것도 있었으나 대개 [그림 8]과 같이 허리를 한 번 감싸는 정도의 길이가 많았으며, 자수 장식이 있거나 장신구 등이 달려 있는 형태로 벨크로로 쉽게 여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남아와 여아의 돌띠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대체로 바지와 저고리를 기반으로 그 위에 배자나 조끼, 전복, 답호, 두루마기, 사규삼, 용포 등과 같은 것을 겹쳐 입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외의에 여러 장식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전체 길이나 소매길이 등을 조금 짧게 하여 착용을 편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용포에서 사규삼 착용을 하지 않는 등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성을 고려하여 아이템들이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색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스트롱톤, 브라이트톤이나 페일톤, 베리페일톤과 같이 화려한 톤이나 밝은 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금박문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였고, 보와 같은 자수 장식을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게 장식한 형태들이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 고무줄바지로 구성한다거나, 상의의 경우 스냅단추 등을 사용하여 편하게 여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복의 착용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자 여밈 장치나, 길이 조절 등의 구성적 요소들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전통적인 복식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아이템은 단순화하면서 색이나 장식 등의 디자인 요소는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4-1-2. 여아 한복

여아 한복의 경우 당의형, 저고리형, 원삼형으로 주

47) 이경선, '현대적 답호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

로 나타났다.

당의형(그림 11)에서 당의는 연두나 노랑 색동 당의 혹은 밝은 색의 당의가 많았으며, 가슴에 보 장식을 하기도 하고, 길상문 허리띠를 함께 하기도 하며, 소매 끝동이나 소매 위쪽에 금박문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밝은 톤의 색동 당의도 있었으며, 크림색이나 밝은 톤의 당의에 치마는 상의보다 약간 더 짙은 라이트톤, 스트롱톤이나 딥톤의 빨강, 노랑, 핑크, 초록, 보라, 파랑 등이 나타났다. [그림 11]과 같이 금박을 댄 스란치마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간혹 어두운 톤의 당의에 밝은 톤의 치마가 함께 착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저고리형(그림 12)에서는 노란 색동저고리, 초록 색동저고리, 연두 색동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반회장 저고리 형태로 깃, 고름, 소매 끝동 부분을 다른 색 천으로 대기도 하였다. 저고리의 길어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매 부분을 비치는 원단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고리에 꽃이나 식물 문양 자수가 들어가거나, 치마에 나비 등 자수 문양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저고리가 밝은 색에 장식이 없을 경우 치마에 장식이 들어가거나 레이스나 시스루 원단 혹은 무늬가 있는 원단이 겹쳐진 이중 치마(그림 12)나 스란치마 형태도 있었다. 치마 허리를 넓게 하고 자수 등 장식을 화려하게 하거나 큐빅 등으로 장식한 경우도 있었다. 치마의 색상은 저고리 색에 따라 반대 톤 혹은 유사한 톤으로 딥톤, 페일톤, 스트롱톤 등 다양한 톤의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원삼과 치마로 이루어진 원삼형(그림 13)이 있었는데, 원삼은 조선시대 부인들의 예복으로 곡령의 소매가 넓고 길며 앞과 옆이 트여 있는 포로 저고리와 치마 위에 입는 형태이다. 그러나 둘 여자들의 경우 저고리는 따로 입지 않고 무릎 정도 길이의 짧은 원삼과 함께 치마를 착용하였다. 원삼에는 가슴과 어깨에 보로 장식한 경우가 많았으며 앞길과 소매에 화려한 자수나 금박문이 들어가 있기도 하였다. 직령의 형태로도 나타났으며, 고름이 달린 경우도 있으나 고름이 없이 매듭단추로 여밈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액세서리로는 머리에 굴레나 조바위(그림 11) 혹은 뺨씨덩이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고, 허리에는 돌띠를 착용하였다. 치마를 부풀리기 위해 속치마를 착용하였고, 버선과 꽃신을 함께 착용하였다.

전통적인 색동저고리나 당의에 붉은 치마(그림 11)가 실제 착용 의상에서도 비교적 많이 나타난 것

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추가되어 무늬나 색 등이 다양해지고, 치마의 경우 이중 치마 등과 같이 성인 여성의 패션 한복에서 나타나는 디자인의 변화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원삼의 경우 포보다는 저고리나 당의 대신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상의의 여밈을 보조하기 위해 스냅단추 등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머리 쓰개에도 금박문, 술 장식, 보석 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 4-1-3. 남아 양장

남아 양장의 경우 셔츠와 바지, 재킷으로 된 클래식 슈트 스타일(그림 14)이 대부분이며 베스트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변형된 슈트 스타일도 나타났다.

클래식 슈트 스타일(그림 14)에서 셔츠는 대부분 흰색이나 재킷과 바지에 있어 여러 색이 나타나고 무늬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어두운 네이비, 다크그레이, 그레이 등과 함께 페일톤이나 베리페일톤의 노랑, 파랑, 초록, 분홍, 그리고 흰색, 베이지 등 밝은 색도 많이 사용되었다. 재킷과 바지는 같은 원단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재킷과 반대되는 톤의 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재킷은 무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와 같은 클래식한 무늬들이 사용되었으며 베스트는 대개 재킷과 동일한 원단으로 나타났다. 바지는 대개 무늬가 없으며 긴 바지보다는 [그림 14]와 같이 반바지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재킷은 테일러드 재킷 형태로 투버튼 싱글 혹은 포버튼 더블브레스트 형태(그림 14)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변형된 슈트 스타일로 노칼라의 더블브레스트 재킷, 세일러칼라가 달린 재킷,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사넬 스타일의 재킷 등도 나타났다. 또한 재킷이 없는 형태로 셔츠와 바지에 베스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은 케이프를 어깨에 두르는 스타일, 재킷 없이 베스트만 착용한 형태(그림 15)도 있었다. 베스트에는 [그림 15]와 같이 테일러드 칼라가 달려 있는 형태도 있었다. 베스트의 색은 바지와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다크톤의 네이비, 그레이나 크림색, 흰색, 페일톤의 파랑, 노랑, 분홍, 보라, 등이 있었으며, 체크 무늬도 나타났다.

액세서리로는 셔츠와 함께 리본 타이나 보 타이 혹은 포인핸드 타이를 함께 착용하였으며, 반바지의 경우 니 삭스를 함께 착용하였고 신발은 대개 구두를 착용하였다. 간혹 베레모와 같은 모자를 함께 착용하기도

하였다.

남성복 슈트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에서 버튼이 부담스럽지 않게 싱글 투 버튼이나 더블 포 버튼이 사용되었고 반바지로 착용이 편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형태의 다양성보다는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 4-1-4. 여아 양장

여아 양장의 경우 이브닝 드레스 형태의 원피스 드레스 형태(그림 16)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대부분 하이웨이스트의 벨 실루엣이고, 반팔이나 슬리브리스가 많았다. 소매의 경우 퍼프 소매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는 소재에 레이스나 비즈, 시퀸 등 장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스커트 부분은 [그림 16]과 같이 여러 겹의 쉬폰 소재가 레이어드된 스타일이나 여러 겹의 플레이어나 티어드 스커트 형태에 프릴 장식, 리본 장식, 꽃 모양 장식, 나비 모양 장식 등을 더하여 풍성한 형태를 만들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색은 흰색이나 크림색이 대부분으로 장식적 요소들도 색상을 통일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검정, 빨강, 페일 톤이나 베리페일톤의 노랑, 민트, 분홍, 보라 등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단색으로 통일하여 전체 의복이 구성되었다.

그 외에 원피스 드레스 위에 케이프나 볼레로 같은 짧은 재킷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액세서리로 머리띠 보닛(그림 16)을 쓰거나 머리띠 혹은 리본을 두르기도 하였으며 니 삭스와 함께 구두를 착용하였다.

여아의 원피스 드레스는 여성 이브닝드레스를 연상케 하면서 흰색 및 밝은 톤을 통일성 있게 사용되던 하이웨이스트의 스커트를 풍성하게 만들고 다양한 장식을 하여 귀여우면서도 화려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7] 남아 한복 배자형<sup>48)</sup> [그림 8] 남아 한복 답호형



[그림 9] 남아 한복 사규삼형<sup>49)</sup> [그림 10] 남아 한복 용포형<sup>50)</sup>



[그림 11] 여아 한복 당우형 [그림 12] 여아 한복 지고형



[그림 13] 여아 한복 원삼형<sup>51)</sup> [그림 14] 남아 양장 클래식 슈트<sup>52)</sup>



[그림 15] 남아 양장: 변형된 슈트 [그림 16] 여아 양장<sup>53)</sup>

49) 사락한복, 남아돌한복대여, (2023.05.01.), sarakhanbok.com

50) Ibid.

51) 사락한복, Op. cit.

52) 드레스로렌, 남아정장, (2023.05.01.), dresslauren.com

53) 슈슈클로젯, 돌드레스, (2023.05.01.),

48) 핑크베이비 돌한복, 돌 전통한복, (2023.05.01.), www.dolhanbok.co.kr

## 4-2. 돌복의 디자인 특성

### 4-2-1. 의례의 상징성

돌복으로는 돌잔치라는 의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복의 형태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돌복인 한복이나, 서양의 의례에서 가장 많이 착용되는 남성의 슈트나 여성의 이브닝 드레스 형태의 양장이 돌복으로 대부분 착용되었다.

특히 설문 응답자 중에서는 전통 돌잔치의 의복인 한복을 가장 많이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약 68%(32명)가 한복을 착용하였다. 돌잔치를 전통적인 의례로 인지하고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으며, 전통적인 복식을 꼭 한 번은 입어 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복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디자인 외에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하였으나 색동저고리, 남아의 전복, 여아의 당의 등과 같이 특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디자인의 한 특성으로 남아 있다. 특히 남아와 여아 모두 공통적으로 돌띠를 가장 대표적인 액세서리로 착용하였는데, 돌복의 대표적인 요소로 이어지고 있었다. 돌띠는 양장에서는 함께 착용되지 않았다.

양장을 착용할 때도 서양식 포멀 웨어 형식을 따라서 의례의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남아의 경우 슈트, 여아의 경우 이브닝 드레스와 유사한 원피스 드레스 형태로 포멀한 파티웨어를 주로 착용하여 의례를 위한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복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돌잔치 문화의 산업화의 저변에는 부모들이 여전히 돌잔치를 중요한 의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 진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복의 경우도 일상적인 옷보다는 의례에 맞는 상징적인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4-2-2. 다양성

전통적인 돌잔치에서는 한복을 착용하였으나, 현재는 한복 외에도 양장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단정하면서 편안한 일상복을 입히기도 하며, 부모가 직접 만들어 입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돌복으로 양장을 선택한 이유로는 깔끔하고 단정하며, 한복의 불편함, 돌잔치 장소와의 어울림, 아이와 어울림 등을 꼽았다. 한복과 양장을 모두 착용한 경우는

한복이 돌잔치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불편해 할 것을 생각해서 세미 양장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일상복을 선택한 경우가 약 6%(3명)였는데, 한복이나 양장은 한 번 입고 못 입기 때문에 단정한 일상복을 선택하여 이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너무 과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착용하고자 함을 이유로 들었다. 한복의 경우도 전통적인 형태뿐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들도 많이 선택되고 있음을 보아 현대의 다원화된 미적 감각이 돌복의 선택에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돌복 분야가 하나의 산업 분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디자인의 범주가 넓어지게 되고 기존의 돌복 디자인이 신한복·패션한복과 같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부모들도 합리적 소비 뿐 아니라 다원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한복 외에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등장하고 또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3. 장식성

돌복에서는 특히 의례의 주인공인 아이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의상에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한복의 경우 금박문이나 보 장식 등이 정해진 의복 유형이나 위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복에서 의복의 여러 부위에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다. 의복 아이템이 한 가지 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깃, 앞섶, 무, 소매 끝동 등에 다른 색의 원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복에 사용되는 색의 종류나 톤이 다양해지고, 한복의 디자인도 최근의 신한복 및 패션 한복과 같은 디자인 변화 경향<sup>54)</sup>을 반영하여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늬가 있는 원단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 레이스나 시스루 원단 등을 활용한 이중치마의 형태로 구성하여 화려한 형태로 나타났다.

양장의 경우도 색상을 다양하게 하거나, 여아의 경우 레이스나 비치는 원단을 사용하거나 시퀸, 자수 등의 여러 장식적 디테일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54) 김여정, '2000년 이후 인쇄매체에 나타난 한복의 조형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95-124

55) 황수진, '유아동 한복의 변천 및 시장현황',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40-52

돌잔치 행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돌복에 있어서는 장식성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돌잔치 형식의 거대함과 화려함보다는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이에 집중하여 아이를 더 돋보이도록 하고자 하는 형태로 소비의 방향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2-4. 착용 편의성

돌을 맞은 아이인 만큼 옷을 착용할 때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구성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 고무줄 허리를 사용한다거나, 여밈에 있어서 단추나 스냅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남아 돌복에서 저고리에 사구삼, 용포 등을 착용하는 여러 겹을 겹쳐 입는 형태보다는 저고리를 생략하고 입는 등의 형태로 간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소매나 몸판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하기도 하였다. 여아의 원삼의 경우도 원래는 저고리와 치마 위에 착용되는 것이나 저고리를 생략하고 원삼과 치마를 입는다거나 원삼의 길이를 짧게 한 형태를 볼 수 있었다.

돌띠도 너무 길지 않게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끈으로 묶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넓은 돌띠의 경우 벨크로로 간편하게 착용하도록 제작되었다.

한복과 같은 전통적인 의상은 일상적인 옷이 아니기에 현대의 아이들이 착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의례의 상징성과 장식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화려한 형태의 한복과 양장이 돌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돌을 맞은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이러한 옷들을 잘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구성 요소들을 활용한 편리성이 돌복에 부여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2]는 돌복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표 2] 돌복의 디자인 특성

특성	내용
의례의 상징성	전통 돌복 형태의 한복이나 서양식 포멀 파티웨어를 선택하여 의례용 의복을 착용.
다양성	한복, 양장, 일상복 등 다양하게 착용. 현대적인 디자인의 한복 착용.
장식성	한복의 경우 다양한 색, 무늬, 소재, 자수장식이나 금박문 사용. 여아 양장의 경우 장식적인 디테일을 사용.
착용 편의성	아이템의 간소화, 간편한 여밈 장치 활용, 길이 조절 등으로 착용을 편안하게 구성.

## 5. 결론 및 제언

돌잔치는 현대에도 아이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부모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복의 디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변화된 돌잔치 문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돌복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부모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돌잔치 관련 사업을 포함한 육아 관련 산업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돌잔치와 돌복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대의 돌잔치 문화와 돌복에 대한 반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돌복 디자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돌잔치 문화의 특징으로는 산업화, 합리적 선택, 다원화가 도출되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 식당, 돌상업체, 돌복 대여업체 등과 같이 세부 요소들이 세분화되어 산업화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부모들은 돌잔치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 의상의 선택 등에 있어서 경제성과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형식의 행사 외에 동영상 제작, 퀴즈 혹은 새로운 형태의 기획 등을 추구하는 등 돌잔치의 형태가 다원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여전히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중요한 의례로 여겨지고 있으며 허례허식을 피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 다원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돌잔치 문화의 변화에 따라 돌복은 크게 남아의 한복 및 양장, 여아의 한복 및 양장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례의 상징성으로, 전통 돌복 형태의 한복이나 서양식 포멀 파티웨어를 착용하여 의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복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는 다양성으로, 전통적인 돌복인 한복뿐 아니라 양장, 일상복 등 다양한 형태의 의복이 착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한복은 전통적인 형태의 돌복뿐 아니라 신한복이나 패션한복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타났다. 셋째는 장식성으로, 한복의 경우 다양한 색, 무늬, 소재, 자수 장식이나 금박문이 사용되었다. 여아 양장의 경우에도 장식적인 디테일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넷째는 착용 편의성으로 돌을 맞은 아이의 인체 구조와 착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의복 아이템의 수를 줄이거나, 간편한 여밈 장치를 활용하거나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의복을 구성하였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는 획일적인 돌잔치의 형태가 고수되었다면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다양화,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의 다원화, 주거 환경의 변화, 친족 및 사회 관계망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돌잔치 문화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돌잔치는 아이의 중요한 의례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부모들이 돌잔치를 어떤 형식으로든 진행하고자 하며, 이때 돌복은 의례의 상징성을 표현하며 화려한 장식성을 보여주고 있다. 돌잔치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이에 집중하여 아이를 더 돋보이도록 하고자 하는 형태로 소비의 방향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돌잔치의 세부 요소들이 산업화되면서 돌복 분야도 전문화되어 다양한 디자인을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미적 감각 및 가치관의 다원화로 인해 한복과 양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디자인의 돌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추어 가격적으로도 다양한 타겟층에 따른 디자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상징적 소비와 더불어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돌잔치 문화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의 형태로, 돌복 디자인에 대해서는 양적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어 전통 돌복의 변화에 대해 의미적인 측면의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돌복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강인희, 이경복, 『한국식생활 풍속』, 삼영사, 1984
2. 경운박물관, 『옛 어린이 그 소중한 여여뽕 옷』, 에이엔에이(주), 2005
3. 권광욱, 『유희이야기: 관혼상제·향례·상견례』, 도서출판 해돋이, 2000
4. 김영숙, 『조선조말기 왕실복식』,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5. 김용덕, 『한국 민속 문화 대사전(상, 하)』, 창술,

- 2004
6. 서울특별시, 『서울민속대관: 4. 통과의례』, 서울특별시, 1993
7.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8. 장성진, 『우리 민속과 전통문화』, 세종출판사, 2004
9. 정경완, 『침선장』,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8
10. Yin, R.K.,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학지사, 2013
11. 김소연, 이인성,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돌 파티웨어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14
12. 백미연, 백민숙, ‘여아를 위한 돌파티 웨어 디자인 개발’,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디자인지식저널, 2013
13. 양순미, 유일상, ‘해방 이후 한국 상례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변화유인원으로 가정의례준칙의 실효성 및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2017
14. 이길표, ‘돌상에 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연구 논문집, 1998
15. 이인애, 박주희, ‘국내 결혼식 문화의 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18
16. 이지원, 송경아, ‘전통한복 양식에 기반한 현대의 돌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15
17. 이해영, ‘20세기 돌옷 변천에 관한 고찰: 사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2001
18. 주영하,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화: 1940~1990’,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한국의 민속과 문화, 2003
19. 김여정, ‘2000년 이후 인쇄매체에 나타난 한복의 조형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0. 김인자, ‘남아 전통 돌복에 관한 고찰과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1. 김희경, '돌 및 생일 상차림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2. 유문희, '출생의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3. 이경선, '현대적 답호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4. 이수혜, '남아 돌복의 착장양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5. 황수진, '유아동 한복의 변천 및 시장현황',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6. 신세아, '우리 아이 드레스는 내 손으로: 손쉬운 돌드레스 DIY', 한국경제 키즈맘, 2014.12.02.
27. 이서연, '키즈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 살길 찾는다', 국제섬유신문뉴스, 2020.02.10.
28. 이미나, '코로나19가 바뀌버린 결혼식과 돌잔치 일상', 한국경제, 2020.04.29.
29. 한경닷컴 bnt뉴스 패션팀, '내 아이 드레스 직접 만들기', 비엔티뉴스, 2009.10.03.
30. [chouchou-closet.com](http://chouchou-closet.com)
31. [dresslauren.com](http://dresslauren.com)
32. [sarakhanbok.com](http://sarakhanbok.com)
33. [www.dolhanbok.co.kr](http://www.dolhanbok.co.kr)